

탄소거래소 개설 준비단 발족

증권선물거래소(KRX)는 최근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위해 탄소거래소 개설 준비단(단장 이광수)을 설치했다.

이미 TSE(일본), HKEx(홍콩), NZX(뉴질랜드) 등 아시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배출권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도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이 경쟁력 있는 탄소거래소를 개장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탄소배출권은 유럽의 ECX(영국), Nord Pool(노르웨이), Powernext Carbon(프랑스) 등 3곳에서 세계의 80%를 거래하고 있으며,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미국도 CCX를 운영하고 있다. NYSE Euronext는 2008년 초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7/11/22>